

우리의 유산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요셉은 그의 생일을 기념했다. 요셉에게 있어 성탄절은 축제,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전 세계에 있는 말일성도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달력에 나와 있는 또다른 중요한 날을 보통 잊어버린다. 그날은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1805년 12월 23일로 성탄절을 이틀 앞둔 날이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보냈는지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지만, 1843년 12월에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12월 23일, 토요일-집에서 나를 방문한 형제들과 토론도 하고, 집안일도 했으며, 성탄절 저녁 식사 파티 준비도 빠뜨리지 않았다.” (*History of the Church*, 6:133) 자신의 생일날에 요셉은 교회, 가족 그리고 축제의 절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성탄 절기에 구세주의 탄생을 기리는 동안, 예언자 요셉의 생일은 또한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유산을 생각나게 해준다. 올해는 말일성도들의 공동 유산을 기리는 몇 번의 축제를 가진 해였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나부 성전 헌납식

지난 6월 27일~30일에 일리노이 나부 성전의 헌납식이 있었다. 전세계 약 3,000 곳에서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공 위성 방송을 통해 이 헌납식에 참여했다. 이 방송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다.

전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이 헌납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있었던 기적과 축복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방송이 지연되었던 인공 위성 장비들이 이 헌납식 바로 전날까지도 세관에 묶여 있었다. 유럽 동부 지역 공보 책임자이자 변호사인 엘리너 네치포로바 자매는 공무원들과 만났으나 다음날 오라는 얘기만 들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필요한 장비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네치포로바 자매는 법적인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나부에 관한 이야기와 이 방송의 중요성 때문에 시청하기 위해 준비해 온 수천



교회 회원들에게 나부 성전 헌납식을 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된 인공 위성 수신 안테나를 쳐다보고 있는 피지의 어린이들. 이 방송은 피지에서 수신한 첫번째 교회 위성 방송이었다.

명의 러시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공무원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 받았으며 물품 인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 장비는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설치되었다.

통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있었다. 인공 위성 장비가 몇 가지 부품이 조립되지 않은 채 엉성하게 배달되었다. 제때에 부속을 대체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설치 기사는 말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음이 바빠졌다. 회원들은 정확한 모양과 각을 지녀야만 하는 주요 부품을 포함해 누락된 부품들을 용접공의 도움을 받는 한편 전화 설명을 들으면서 고철을 이용해 완성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수고는 결국 보상을 받았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가인들의 신앙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태평양 제도의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는 말했다.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 방송을 통해 얻은 영적인 경험에 대해 알려 왔다.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일시적인 성전의 일부로서 사용되기 위해 청소되고 준비된 집회소로 모여들었다. 어떤 회원들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와 있기도 했다. 이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 네 시간 거리를 여행해 온 피지 라우트우커의 하리 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의 참됨에 대한 저의

간증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이 모임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아홉 살의 스웨덴 초등학교 어린이 카린 하칸선은 "제가 예언자를 보고 그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으로부터 받은 한 보고가 많은 말 일성도들의 느낌을 대변했다. "나부 성전의 헌납식은 이곳 필리핀으로부터 수천 마일이 나 떨어져 있으며, 문화와 역사가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필리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초기 나부 성도들의 이야기...세계 여러 곳에 있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치른 희생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방문자 센터, 뉴욕과 오하이오에서 헌납

나부 성전 헌납식 바로 다음날인 7월 1일에 헝클리 대관장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새롭게 세워진 구모라 언덕 방문자 센터를 헌납했다. 헌납 기도문에서 그는 주님의 영이 이 센터를 방문하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곳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감사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길 빌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째 시현은 바로 그 근처의 나무 숲속에서 일어났으며 그는 구모라 언덕에서 천사 모로나이가 건네준 금판을 받았다. "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헌납식 일주일 전인 6월 24일에 교회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지어진 두 개의 역사적 건물을 포함해 방문자 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 역사적인 커틀랜드 방문자 센터는 교회 회원들이

1830년대에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제분소를 본따 지워졌다.

커틀랜드에서의 시간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특별한 기간"이었다고 방문자 센터 책임자인 데이비드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2003년 여름까지 역사적인 커틀랜드에 복구되거나 재건되는 부지들을 헌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 개척자들의 희생을 기린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1847년에 유타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초기 개척자들의 업적과 희생에 찬사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부로부터 이곳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이주해 왔던 물론 개척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이 위대한 땅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7월 21일, 일요일에 열린 교회 인공 위성 시스템을 통해 방영된 개척자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했다.

나부 성전에 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적은 글들 중에서 발췌하여 꾸며진 글로 구성된 해설을 포함하여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선사했다.



사진 제공: 헝클리 대관

물론 개척자들의 솔트레이크 계곡 도착 기념일을 기리는 노변의 모임에서 말일성도 개척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성전에 관해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개척자들이 그 지역 사회를 건설하고 후에 그곳을 떠나는 과정에서 행했던 일의 위대성을 새롭고도 훌륭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나아갔으며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초기 이주자들은 이 외롭고 황량한 곳에 오늘날 우리

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이 도시는 거대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 어떠한 방식으로든 [올림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올림픽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7월 24일 유타에서 열린 개척자의 날 기

념식의 또 한 부분은 연례 거리 행렬로 이것은 이 계곡에 도착한 말일성도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서 열린 Days of '47 행렬에서 주요 인물로 선출되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7월 23일 유타 주 바운티폴에서 열린 손수레의 날 행렬 행사에 주요 인물로 참여 했다. □

교회, 기근 이재민들 구제 위해 미화 1백만 달러 기부

교회는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만연한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을 돕기 위해 거의 2,700톤의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는 미화 1백만 달러를 UN 식량 기구에 제공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통 받거나 굶주리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상관 없이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교회의 복지 서비스부 관리 책임자인 해롤드 브라운 형제는 말했다. 남부 아프리카에 닥친 가뭄은 농작물 수확을 망쳐 놓았으며, 1,300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의 기부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목숨조차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었습니다.”라고 UN 세

계 식량 기구의 집행 책임자인 제임스 모리스 씨는 말했다. 모리스 씨는 이번에 제공된 현금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금은 곡물을 구매하고 그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재빠르게 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세계 식량 기구는 세계적인 기근에 대항해 싸우는 UN의 중추적인 기구이다. 2001년에 이 기구는 전세계에 산재한 난민들의 대부분을 포함해 82개 국에 있는 7,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교회는 이번의 현금 기부 전에도 말라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6,750개의 비상 식료품 상자와 옷이 가득 담긴 네 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해 그곳으로 보냈다. 한 달 전에는 추가로 450톤의 옥수

수와 콩들이 가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구매된 바 있었다. □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교회는 최근에 발생한 가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미화 1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뉴욕에 세워질 성전

교회는 뉴욕 시 중심가에 세워질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맨해튼 링컨 센터 근처에 위치할 새로운 성전은 앞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콩 성전과 같이 기존의 6층짜리 교회 건물의 꼭대기 두 층을 사용하게 된다. 홍콩 성전과 같이 뉴욕에 세워질 이 성전은 도심의 다른 건물들과 인접한 가운데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라고 맨해튼에 사는 사라 애스폴런드는 Salt Lake Tribune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맨해튼에 있는 교회 건물은 계속해서 예배당, 교실 그리고 활동실을 수용하게 되며 계속해서 공부 부 사무실과 가족 역사 센터가 유지될 예정



맨해튼 소재의 교회 소유 건물에 뉴욕의 두 번째 성전이 들어설 것이다. 성전은 이 건물의 꼭대기 층에 위치하게 된다.

이다. 그에 따른 설계와 수리가 이미 시작되었다.

맨해튼에 세워질 성전은 뉴욕 주에 세워

지는 교회의 두 번째 성전으로, 첫번째 성전은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다. 교회는 또한 뉴욕 주 해리슨에 세워질 성전을 위한 부지

를 갖고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다. □

그루지아 공화국에 조직된 첫번째 지부

50여 명으로 구성된 그루지아 공화국의 첫번째 지부가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올 6월 9일에 조직되었다. 이 지부는 복음 전도를 위해 이 나라가 헌납된 후 3년 만에 세워졌다.

러시아와 흑해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인 그루지아 공화국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에 의해 1999년 3월에 헌납되었다. 헌납 직후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해 영어 교육뿐 아니라 고아원과 병원에 보낼 보급품들을 정리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사회 봉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가 헌납되었을 당시, 몇 년 전 네덜란드 체류 중 교회에 가입한 바즈하 나트로쉬빌리 형제만이 유일한 이 지역의 회원이었다. 나트로쉬빌리 형제는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가르치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첫번째 가족과 독신 회원 한 명이 침례를

받았다.

교회는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꾸준히 성장해 갔다. 올 6월 43명의 회원과 몇 명의 구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동부 유럽 회장단의 제2보좌이자 칠십인 정원회 회원인 로버트 에프 오톤 장로와 아르메니아 예레반 선교부의 머빈 벡스트랜드 선교부장이 새로운 지부를 공식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참석했다. □

박물관 전시 작품, 인터넷 갤러리로

전 세계에 있는 방문객들은 새로운 박물관 웹 사이트인 교회 역사 미술 온라인 박물관을 통해 전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www.lds.org/museum이라는 인터넷 주소로 가진 온라인 갤러리는 솔트레이크시티 박물관의 전시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 웹 사이트는 또한 다가오는 전시회와 세계 미술 경연 대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웹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솔트레이크 박물관을 방문할 수 없는 대부분의 전세계 교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의 운영 담당자인 스티븐 올슨 형제는 말한다. 이 박물관은 전세계에 있는 말일성도들의 미술 및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전시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전시되는 작품에는 “역사적인 나부의 초기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갤러리 방문객들은 컴퓨터의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19세기 회화 작품, 판화, 사진 및 성전과 주변 도시들을 표현한 스케치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 전시는 건축가들

이 성전 재건축에 도움이 되었던 나부 성전의 역사적 이미지도 담고 있습니다.”라고 전시 큐레이터인 리차드 지 오만은 말한다.

또한 이 사이트는 “서트클리프 모드즐리: 나부 초상화가”라 불리는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1842년에 영국으로부터 이민 온 직물 업자 모드즐리 형제는 예언자 요셉과 하이라드 스미스의 실제 모습으로 알려진 작품들 가운데 몇 점을 그렸다.

이 웹 사이트는 또한 복음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창의적으로 묘사한 세계 각국의 화가들이 참여했던 박물관 주최 국제 미술 대전의 과거 입상자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입상작 가운데는 물론경 이야기를 채색된 점토 조각들로 표현한 작품과 최후의 만찬이 표현된 도자기, 부모와 어린이들을 그린 유화 및 크리스탈을 깎아서 만든 성전이 포함되어 있다. 3월에 이 사이트는 2002년 11월에 등록이 마감된 제6회 국제 미술 대전의 입상작들도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많은 부

분은 불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도 볼 수 있다. □



나이지리아의 조각가 로런스 에이자터가 출품한 국제 미술 대전의 수상작, “교회의 중심이 되는 단위 조직인 가족” 조각상. 현재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이 인터넷에 전시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의 조각가 로런스 에이자터가 출품한 국제 미술 대전의 수상작, “교회의 중심이 되는 단위 조직인 가족” 조각상. 현재 이 작품과 다른 작품들이 인터넷에 전시되어 있다.

구입이 가능한 새로운 교회 자료

현재 새롭게 갱신된 몇 가지 교회 자료들의 구입이 가능하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3년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용 새 공과 및 학습 교재가 현재 구입 가능하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35969 320)는 교회의 제3대 대관장인 존 테일러 대관장의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재는 와드와 지부에 배부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및 참고 자료

새로 갱신된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36550 320)가 출판되었으며 현재 전세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 소책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 예를 들어 데이트, 품행, 대중 매체와 오락, 안식일 준수 및 육체적 건강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 갱신된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36676 320, 36677 320, 36678 320) 책자와 **청녀 개인 발전 기록 부** (36035 320) 또한 구입이 가능하다.

부모 및 지도자들을 위한 참고 자료도 구입이 가능하다. **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지도서** (36679 320)는 부모 및 지도자들의 역할에 관한 설명과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52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교회 배부 센터나 www.ldscatalog.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

대학생 연령의 독신 성인들이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폭 넓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회 교육 기구 교재가 현재 구입 가능하다. (단 영어로 된 교재)

이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 (35311 320; 한국어로 된 교재는 출판 예정임)는 책임과 대화, 교육 및 영원한 관점, 동반자 선택, 품행 및 정숙과 같은 주제에 관한 주제별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강조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며, 학대, 부채, 이혼, 간음, 외설물, 동성애 및 여성의 신성한 역할과 책임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교재는 20년 전에 쓰여진 결혼 준비 교재를 대체하는 것으로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교회 배부 센터나 www.ldscatalog.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PAF(개인 조상 파일) 소프트웨어

개인 가족 역사 기록 작성을 위한 갱신 소프트웨어 **FamilySearch™ PAF**(개인 조상 파일)을 교회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버전인 PAF 5.2는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및 스웨덴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www.familysearch.org 사이트에서 “Order/Download Products”를 클릭한 뒤 “Software downloads-Free”를 클릭하고 “Personal Ancestral File 5.2”를 클릭하면 된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언어들을 볼 수 있다.

CD 판 PAF 5.2(77034 320)는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신임 선교부장 세미나

올 6월 25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새로 부름 받은 선교부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올 6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4일 동안 열린 신임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첫번째 연사로 말씀했다. 이 세미나 동안, 100명 이상의 신임 선교부장과 그들의 부인들은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대관장단 제2보좌

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교회로부터의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들의 생업이 무엇이건 선교 임지로 떠났던 분들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께 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새로 부름 받은 선교부장 부부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힝클리 대관장.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대관장단은 지역 회장단의 임
무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의 변경 사항은 2002년 8월
15일부터 유효하다.



1. 북미 북서부



윌리엄 알 브래드
포드 제1보좌
켄 린 엘 록
회장
스티븐 에이
웨스트 제2보좌

5. 북미 남동부



키스 크로켓
제1보좌
진 알 록
회장
에이치 엘드리지
길레스피 제2보좌

11. 멕시코 북부



로버트 제이 웨튼
제1보좌
게리 제이 코울먼
회장
아드리안 오초아*
제2보좌

2. 북미 중부



브루스 시 하텐
제1보좌
도널드 엘
스타헬리 회장
3린 에이 미켈슨
제2보좌

6. 북미 남서부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제1보좌
에프 버튼 하워드
회장
스티븐 비 오브스
제2보좌

12. 멕시코 남부



아르만도 가오나*
제1보좌
리차드 에이치
원립 회장
벤하민 더 호요스
제2보좌

3. 북미 남동부



글렌 엘 페이스
제1보좌
스펜서 제이 콘디
회장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제2보좌

7. 북미 서부



듀엔 비 제라드
제1보좌
린 지 로빈슨
회장
말 알 크리스티슨
제2보좌

9. 유타 남부



더블류 홀프 카
제1보좌
존 에이치
그로우* 회장
네드 비 루에시
제2보좌

13. 중미



홀리오 이
알바라도* 제1보좌
엔리크 알
파라벨라* 회장
이 이스라엘
페레스* 제2보좌

4. 북미 동부



제이 켄트 플러
제1보좌
데이비 이 밀러
회장
고든 티 와츠
제2보좌

8. 유타 북부



몬트 제이 브러브
제1보좌
크리 엘 코포드
회장
메릴 시 옥스
제2보좌

10. 아이다호



디 렉스 제라트*
제1보좌
시 스코트
그로우* 회장
로널드 엘
러브랜드* 제2보좌

14. 남미 북부



윌터 에프
곤잘레스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엘
코스타 회장
로베르토
가르시아* 제2보좌

*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24. 호주/뉴질랜드

존 엠 매드슨
제1보좌케네스 존슨
회장린드지 티 달*
제2보좌

26. 유럽 서부

웨인 에스 피터슨
제1보좌해럴드 지 할렘
회장더블류 크레이그
조워크
제2보좌

27. 유럽 동부

키스 케이 할버그
제1보좌더글러스 엘
콜리스터
회장로버트 에프 오튼
제2보좌

25. 유럽 중부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제1보좌디 리 토블러
회장말린 케이 켄슨
제2보좌

28. 북아시아

요시히코 가부찌
제1보좌도널드 엘
홀스트롬
회장게리 에스
마쓰다*
제2보좌

29. 아시아

이 레이 베이트먼
제1보좌존 비 딕슨
회장디 앨런 앤더슨*
제2보좌

15. 남미 서부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제1보좌데이비드 알 스톤
회장윌리 에프
주주나기*
제2보좌

16. 브라질 북부

로버트 알 스튜어
제1보좌아데마 다미아니
회장페드로우 제이
멘하*
제2보좌

18. 칠레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제1보좌제프리 알 홀런드
회장칼 비 프랫
제2보좌

20. 아프리카 서부

에이치 로스
워크먼
제1보좌셀든 에프 차일드
회장알 콘래드 슐츠
제2보좌

22. 필리핀

인헬 아브레아
제1보좌앨런 에이치 옥스
회장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제2보좌

17. 브라질 남부

다윈 비
크리스틴슨
제1보좌닐 엘 앤더슨
회장파울루 알 그레흠
제2보좌

19. 남미 서부

엘 휘트니
클레이튼
제1보좌제이 이 켄슨
회장카를로스 이
아게이로우*
제2보좌

21. 아프리카 남동부

스티븐 이 스노우
제1보좌로버트 시 옥스
회장데이비드 제이
바넷*
제2보좌

23. 태평양 제도

로버트 케이 앨런
바호
제1보좌로널드 티 할버슨
회장데니스 이 시먼즈
제2보좌

아들 그리고 그분들이 인류 역사의 이 시점에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에 관해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어졌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자신의 말씀에서 선교사들의 성공 여부는 선교부장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고양시키며,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집은 영원히 간직할 기억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세 가지 요소인 선교사, 메시지, 회원에 관해서도 말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그분의 손자녀들이 선교 사업을 통해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10가지에 대해 말했다. 첫째,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간증, 둘째,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간증, 셋째, 복음에 대한 사랑, 넷째, 경전 지식, 다섯째, 선교부장 부부에 대한 사랑, 여섯째, 선교 임지와 그곳 주민들에 대한 사랑, 일곱번째, 동반자에 대한 감사, 여덟번째, 기도의 권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아홉번째,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 열번째, 인생의 도전들에 맞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영속적인 신앙.”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선교 사업을 통해 배우게 된 교훈들에 관해 선교부장과 그들의 자매들에게 전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이 아닌 주님의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훌륭한 경험입니다.”라고 그 분은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선교 사업의 다른 부분에 관해 말했다. 연사로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조셉 비 워스런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포함되었다. □

칠십인 회장단 변경



대관장단은 벤 비 뱅크스 장로의 후임으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를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불렀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8월 15일부터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칠십인 회장단에는 그 외에 얼 시 텅기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찰스 디디에이 장로 및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가 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1994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1996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았으며, 몇 군데의 지역 회장으로

도 봉사했고, 가장 최근에는 북미 서부 지역에서 봉사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했으며 삶의 대부분을 독일에서 살았다. 그와 그의 부인인 해리엇 라익스 우흐트도르프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 □

2002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자료로서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12월호에 나와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익의 사항과 활동을 위해서는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친구들란의 12쪽과 13쪽에 나와 있는 “평화의 왕자(평강의 왕)”를 참

조한다.

1. 대관장단 메시지(12월호 친구들란, 2~3쪽 참조)를 통해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의 평화였으며, 지금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개인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사야 2장 2~4절을 큰소리로 읽게 한다. 주

님의 집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다음 질문을 한다: “칼과 창 의 용도는 무엇인가? 보습과 낫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의 길 안에서 걸을 수 있는지에 관해 말해 준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이 지킬 수 있는 특정한 계명에 관해 토론한 후 칠판에 열거한다. 가능한 경우, 어린이들이 찰흙이나 소금 반죽을 이용해 전경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한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이 그들의 무기를 문개서 농기구나 평화로운 시기에 사용되는 그 밖의 연장을 만들게 한다. 다음으로, 동물, 파충류 또는 곤충 가운데 하나를 만들거나 그리게 한다. 만든 창작품들을 함께 전시한다. 이러한 동물들이 오늘날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이것을 동물들이 구세주의 재림 후에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와 비교한다. 어린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의 가정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한 명의 어린이조차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간증을 한다.

2. 초등학교 모임 시작 전에, 몇 개의 콩을 넣어 둔 주머니와 용기 하나를 준비해 둔다. 이 용기를 교실 앞쪽에 놓아 둔다. 테이프나 종이를 사용해 용기로부터 1미터 거리를 표시해 둔다. 동일한 간격으로 10개의 표시를 더 만들어 교실 뒤까지 표시해 둔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행동은 구세주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도와 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열 처녀의 비유(마태복음 25:1~13 참조)를 들려 주고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등에 기름을 붓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나의 복음 표준”(어린이란, 1997년 2월호, 성도의 빛, 14~15쪽 참조)을 보여 준 뒤, 어린이들이 이러한 표준에 따라 삶으로써 자신들의 등에 기름을 붓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어린이들에게 교실 앞쪽에

있는 용기는 초등학교의 기름 전등이라고 말해 준다. 콩 주머니들은 기름 방울이라고 말해 준다. 복음 표준을 암송한 어린이들이 등에 기름을 채울 수 있다. 복음 표준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등(용기)에 기름(콩 주머니)을 붓기 위해 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반원 가운데 한 명에게 표준 한 가지를 암송하게 한다. “나는 …” 뒤의 단어들을 하나씩 맞추 때마다, 그 학생은 용기쪽으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한다.(하지만 용기와 가장 가까운 표시보다 앞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뒤, 그 학생에게 콩 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만일 그 주머니가 용기에 들어가면, 다음 번 학생에게 자신이 그 표준에 따라 살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게 한 뒤,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콩 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첫번째 콩 주머니가 용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번 학생에게로 순서가 돌아간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어린이들이 표준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동일한 표준을 이용한다. 해당 표준을 강화시켜주는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다른 표준들을 이와 같이 반복한다. 어린이들에게 복음 표준을 단지 외우기만 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준다. 진실되게 그 원리들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설명해 준다. 복음 표준 가운데 어떤 한 가지에 따라 살았을 때 받은 축복에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친구들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준다.

3. 노래 시간 동안 성탄절 선물 고르기 시간을 갖는다. 사전에,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절 노래나 성전에 관한 노래, 또는 그 외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찬송가를 이야기 하게 한다. 예수님 탄생 기념 인형들의 뒤에 여러분이 이용하게 될 찬송가나 노래의 제목을 적어 놓는다. 각각의 종이 위에 다음 지시 사항을 적는다. 남학생들 노래함, 여학생들 노래함, 성인들 노래함, 일어서서 노래 부르기, 아가펠라 부르기, 콧노래나 노래 부르기, 크고 부드럽게 노래 부르기, 노래 지휘하기, 모든 절 다 부르기, 율동과

함께 노래 부르기. 각각의 종이를 각각의 선물 상자, 가방 또는 용기에 붙인다. 예수님 탄생 기념 인형들을 칠판이나 탁자 위의 용기에 놓는다.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져다주는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마태복음 2:1~11 참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선물로 노래가 있음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마음에서 우리 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교리와 성약 25:12) 어린이 한 명에게 예수님 탄생 기념 인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그 인형 뒤에 붙여 놓은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또다른 어린이에게는 용기를 열게 한 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노래나 찬송가를 부를 때의 지시 사항에 따르게 한다. 남학생들, 여학생들 또는 성인들은 각기 자신들이 노래 부를 차례가 되었을 때 교실 앞쪽으로 나올 수 있다. “콧노래나 노래부르기”의 경우에는, 두 명의 어린이를 선택한다. 한 어린이가 콧노래를 하고 다른 어린이는 노래를 한다. 한 명은 앞쪽을 보게 하고, 다른 한 명은 뒤쪽을 보게 한다.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 두 명의 어린이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떠한 어린이가 앞쪽을 보느냐에 따라 콧노래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크고 부드럽게 노래 부르기”의 경우에는, 한 어린이에게 부드럽게 부르게 할 경우에는 손을 모으고, 크게 부르게 할 때에는 손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음량을 조절하게 한다. “노래 지휘하기”의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에게 박자 패턴을 알려 주고 첫 몇 마디의 지휘를 도와 준다. “율동과 함께 노래 부르기”에서는, 몇 그룹의 어린이들이 각기 다른 소절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전곡을 부르기 전에 해당 어린이들이 나머지 반원들에게 자신들의 율동을 가르치게 한다. 경건한 노래나 찬송가로 모임을 마친다. 모든 어린이들이 노래 부르는 동안, 한 어린이가 교실 앞쪽에서 뒤쪽으로 걸어가게 하고, 각 줄의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가 자신들의 줄을 지나갈 때 팔장을 끼게 한다. □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대구 스테이크 회원들의 금식 간증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지난 여름, 비비람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구 스테이크 회원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간증들을 얻었다고 전한다.

윤석주 형제(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지난 8월 15일에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집안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와드 대제사 그룹장인 배성수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으로부터 지금 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날 금식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피해가 크며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올 전망이라는 뉴스로 상황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금식하라는 권고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금식과 함께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비를 멎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비는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비가 멎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느낌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기상청의 일기 예보에서는 “열흘 넘게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 호우가 끝나고 늦더위가 시작된다”는 낭보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갠 날씨는 30일까지 맑은 날씨로 계속됐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의 종이 권고에 따르는 것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유병철 형제(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감독님께서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도록 권고를 받은 8월 16일은 평일이었고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기에 금식하는 것이 약간은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상의한 후에 가족이 모두 금식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배가 고프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비가 멈추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가족 모두가 금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식 중이던 아들 인제는 낮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 금식 중에 음식을 먹나 봐, 나는 끝까지 금식해야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족 모두가 순수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창훈 형제(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8월 15일 아침 아파트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내린 비는 대구 기상대가 1907년 생긴 이래 최장 기간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5일 정도 비가 더 올 것이며 상황에 따라 더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남에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류의 댐들이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기쁘게 장로님으로부터 대구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은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 날은 평일이어서 금식하며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금식의 목적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날도 여전히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정말 비가 그칠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위로운 자들의 금식과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잠깐 비가 그쳤으며 습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공기가 스쳤습니다. 순간 비가 멈추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생애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찬송가 68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부르며 감사의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자녀들의 행복만을 바라시고 또 그분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때나 좋은 때에나 순종하는 어린 아이처럼 계속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간증입니다. 신앙을 가져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기도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을 얻게 되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기도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7쪽)

나라를 지키는 산타들

하지웅 형제(인천 스테이크 답동 와드)



의무 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하지웅 형제입니다. 입대 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구조조정 바람으로 많은 회사들의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철야 근무와 시위대 진압은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찰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찰 도중 저의 발걸음은 어느새 저희 관내에 있는 답동 와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 때의 느낌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복무 중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무 경찰이라 특별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면 아마도 그들은 교회 회원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선교사를 만났을 때 관심을 갖게 되리라는 확신으로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예비 선교사를 동반자로 한 곳에 보내셔서 저는 같은 와드의 송경일 형제와 함께 복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감사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제대하면 더욱 잘 준비해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니파이서 2장 25절 말씀처럼 기쁨을 갖고 생활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채태곤 형제(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요즘 군에서 경전을 읽어보면서 군인이 아니었을 때와는 아주 다른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앨마서 24장에 나오는 개심한 레이맨인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개심한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맹세에 따라 무기를 땅에 묻었고 동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친 레이맨인들이 개심을 할 정도로 담대하게 죽어갔습니다. 경전에는 '이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맞아 죽은 자의 수보다 더 많았으며, 맞아 죽은 자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받았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형제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맹세를 지켰던 것과 나중에

그들의 지너들로 구성된 힐라멘과 이천 용사는 군복무 중인 저에게 가장 강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유와 종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힐라멘의 이천 용사들의 모습은 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결심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한 민족으로 통일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있었던 모로나이는 저에게 아주 많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그분의 축복으로 승리했던 기사를 읽으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애국심을 갖게 됐고 590쪽의 작은 분량의 책인 물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완배 형제(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청소년 시기엔 물몬경과 청소년 대회가 제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독신이 되어서는 직접 청소년 모임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발전하는 모습에서 이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은 더 더욱 깊어졌습니다. 희생의 고귀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잠시 저활동이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그 때에 그런 간증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27일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중대 및 대대의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저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와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저의 행동에 많은 고참들과 간부들이 화를 내며 괴롭혔지만 저는 계속 주님과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놀랍



게도 저를 괴롭히던 고참과 간부들이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과 유혹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주님의 방편이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도 간증을 잃지 않고 조금씩 이나마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복음을 택하고 주어진 시련과 그것을 통해 간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의 복음이 회복된 참된 복음임을, 이 교회의 대관장님은 지상에 살아 계신 주님이 부르신 예언자임을 간증합니다.

산타의 겨울 이야기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전영준 형제

아이들이 잠든 밤, 가만히 장롱 속을 뒤져본다. 해마다 이맘 때면 반짝 빛을 보고 장롱 속에서 잠을 자는 산타클로스 의상을 챙겨 보려는 것이다. 어느덧 내가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한 지 스무 해가 넘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사연들이 많이 쌓였다.

한 십여 년 전쯤인가, 산타 할머니가 된 아내와 함께 초저녁에 시작한 산타 나들이가 자정이 훨씬 넘어서 끝났다. 내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 준비를 잊은 것이 생각났다. 궁여지책으로 구멍가게에서 과자 몇 봉지를 사 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도 한 목소리로 화답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놓은 과자를 귀한 선물인양 받아드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낯이 찡해진다. 과자를 나눠 먹고 이웃들 잠 깨울까 조심조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들려 하는데 갑자기 팡! 팡!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소리 후엔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대문을 열어보니 웬 큰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고개를 가웃하며 풀어 본 보따리 안에는 폭신한 이불 한 채와 우리 아이들 몸 치수 따라 고만고만한 한 크기의 점퍼며 코트 등 방한복들이 들어 있었다.

“야,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는 갑다!” 막내의 감탄사에 제 형들이 까르르 웃는다. 금세 눈물이 글썽해진 아내는 “세상에, 산타의 집에 산타가 오시나니…….”하고는 목이 잠겨 뒤통 말을 잊지 못했다.

유난히 추웠던 그 해 겨울, 우리 가

족에게는 더 없이 따뜻하기만 겨울이었다.

편집자주: 전영준 형제는 현재 부산 스테이크 공보담당 고등평의원이며 제1회 평등 부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오, 시온의 자매여

본부 보조 조직 직원 훈련 모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앤 시 핑그리 자매와 초등학교 회장단 제 보좌인 게일 엠 클레그 자매가 한국의 말일성도들을 방문했다.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마련된 보조 조직 직원 훈련 모임에서 우리 자매들이 뿌리고 거둔 씨앗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상호부조회와 청년회, 그리고 초등학교의 직원들과 관련 신권 지도자들이모인 두 지역의 훈련 모임에서 전반 모임은 모두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두 자매는 모두 부름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우리의 부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일깨우고 그 분의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분반 모임

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졌는데 상호부조회의 모임에서 핑그리 자매가 상호부조회는 신권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조직이라는 조직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비축 프로

그램 시범도 진행됐다. 특히 물통과 알루미늄 팩 포장 등을 이용한 쌀 비축 방법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우리 고유의 음식인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비축하는 것도 발표됐다. 아울러 물을 비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중요하며 그것에 대해 깊이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의 게일 엠 클레그 자매는 초등학교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했다. 한 방편으로 '복음을 주제로 한 노래는 자녀들의 마음에 간증을 심어주는 도구'가 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를 가르치고 노래의 가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했고 아울러 초등학교 지도자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원리인 영적으로 준비하고 반원들을 사랑하며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지역 소식

광주 스테이크 대회

2002년 11월 3일 광주, 목포, 해남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후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임종하 스테이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그분에 대한 간증을 갖도록 노력하기를 권고했다. 대회 중간에는 광주 전역의 청소년과 청소년 회장단 그리고 선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As sisters in Zion"을 특별 찬송으로 불러 대회의 영을 고조시켰다. (박유미 기자)

대구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1일과 2일, 대구 수성 와드에서는 서희철 부신 선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대구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전정진 스테이크장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성도를 돌아 보라'이며 보다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경 기자)

대전 스테이크 대회

11월 2일과 3일, 대전 스테이크 선화 와드에서는 2002년 하반기 대전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유성 와드의 최찬경 형제와 선화 와드의 백승주 형제가 장로 신권에, 삼성 와드의 임두빈 형제가 대제사 신권에 각각



성임되었다. 송윤현 스테이크장은 성도들이 모든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며 굳세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권고하였다. (심재선 기자)

부산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하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을 감리한 기쁘씨 장로는 '한반도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마침내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간증을 전하고 이 지역 성도들의 오랜 염원인 부산 지역의 성전 건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 주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회원들이 가정 복음 교육에 힘쓴 결과 저활동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회의 빛을 더했다. (전영준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지난 8월 24일에서 25일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의 감리로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홀스트롬 장로는 대회를 통해 '기본 지도력'의 원리를 상고하고 예언자의 음성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발산 와드의 홍기옥 형제, 목동 와드의 강경곤 형제, 박기준 형제, 개봉 와드의 윤종희 형제가 각각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직에 성임됐다. (정춘영 기사 제공)

수원 스테이크 대회

힐라맨서 3장 31절을 주제로 한 수원 스테이크 대회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민혜기 장로의 감리로 10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치뤄졌다. 이 대회의 주연사인 민혜기 장로는 가정 복음 교육

의 활성화 및 회원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제사로 오산 와드의 브로서트 형제, 장로는 권선 와드의 이경규 형제, 신평 와드의 임동선 형제, 매탄 와드의 박지형 형제가 각각 성임되었다. (이상호 기자)

인천 스테이크 대회

11월 2일에서 3일 양일간 인천 스테이크 대회가 답동 와드에서 열렸다. 길영권 스테이크장의 감리 하에 박병규 한국 선교사 훈련원장과 닐슨 서울 성전장, 뱅거터 서울 서 선교부장과 함께 선교 사업을 주제로 약 48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이 대회에서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장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환 기자)



제주 지방부 대회

2002년 하반기 제주 지방부 대회가 지난 10월 27일 제주 지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희철 부산 선교부장 부부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가 함께하여 훌륭한 말씀을 전했다. 고원용 장로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분의 주된 관심사인 새로운 회원의 지속적인 활동화와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했다. (김순애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작품 및 비축 프로그램 전시회

10월 19일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작품 및 비축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통해 닦은 솜씨를



발휘하는 장이 된 이번 모임은 특히 비촉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전시회로 주목을 받았다. 72시간 생존 배낭 꾸리는 법과 물품 구입 방법을 함께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박정현 기사 제공)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바자회 및 작품 전시회

지난 10월 19일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모여 바자회 및 작품 전시회 행사를 가졌다. 전시회에서는 자매들의 솜씨를 보인 다양한 생활 작품이 선보였고



바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원당 와드의 이성진 형제가 비촉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알루미늄 팩 밀봉기를 소개해 자매들의 관심을 모았다. (남경희 기사)

제주 지방부 복지 및 비촉 프로그램 훈련 모임

제주 지방부에서는 지난 9월 7일 북 아시아 지역 복지 책임자인 박남수 장로, 김명숙 자매 내외를 초대하여 '복지 및 비촉 프로그램 훈련 모임'을 가졌다. 박남수 장로는 자립의 중요성,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스테이크장단과 감독단의 책임, 그리고 개인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 사용 방법과 가정 비촉을 위한 밀봉기 사용 방법을 교육했다. (김순애 기사)

영어 말하기 대회-강서 스테이크

지난 11월 2일, 한국 공보 위원회가 후원하고 강서 스테이크가 주관하는 초중생 대상 제1회 영어 말하기 대회가 한국 가스 공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16명의 참가자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자리



영어 말하기 대회 - 영동 스테이크

에는 로버트 할리 형제가 참석해 영어 학습법을 강의했고 선교사들의 음악 연주와 교회 홍보 비디오 상영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 (정고은 기사 제공)

영어 말하기 대회 - 영동 스테이크

영동 스테이크 천호 와드와 하남 지부가 10월 18일과 11월 1일 천호 와드에서 영어 회화반, 구도자, 회원이 함께 합동 모임을 가졌다. 10월 18일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영예의 대상은 천호 와드 영어 회화반의 김민영 자매가, 우수상에는 하남 지부 구도자인 김경숙 자매의 딸 손유진 어린이가 차지했다. 11월 1일에 가진 할로윈 축세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선교사들이 준비한 게임을 즐기고 호박을 이용한 초롱을 만들며 우정을 증진했다. (김현철 기사 제공)

대전 스테이크 노변의 밤

2002년 10월 22일 저녁,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기쁘게 장로 부부와 함께하는 노변의 밤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정석환 홍성 지방부장, 정태걸 청주 스테이크장, 라이프 대전 선교부장 등 신권 지도자들이 모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여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다. 송윤현 대전 스테이크장은 예언자와 사도들을 지지함을 밝혔고 기쁘게 자매는 인생의 길에 놓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간증했다. (심재선 기사)

서울 서 종교 교육원 포럼

지난 10월 26일, 신촌 와드에서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임'이라는 주제로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주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엘 알딘 포터 장로가 '세상에 전하는 가족 선언문'의 내용과 결혼과 순결, 재정적인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는 비디오를 시청하고 그룹으로 나누어 결혼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과 함께한 길정권 강서 스테이크장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길 권고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격려했다. (남경희 기사)

서울 선교부 선교사 벌초 봉사 활동

서울 선교부 소속 46명의 선교사들이 지난 9월 11일 벽제 공원



의 주인 없는 묘지를 벌초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를 보고 “한국 사람도 하기 어려운 벌초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해주시 고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선교사입니까?”라며 찬사와 관심을 보였다. 이 봉사 활동은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 (조규영 기사 제공)

권영준 형제 명사 음악회 공연

지난 10월 28일, 수원 스테이크 신봉 와드의 권영준 형제가 출연한 명사 초청 음악회가 세종 문화 회관에서 공연되었다. 영양 결핍 아동 지원을 위한 이번 공연에서 권 형제는 서울 내셔널 심포니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을 협연하여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권 형제는 현재 서울 동부 지원 판사로 재직 중이며 수원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상호 기사)

시장 표창 수상한 광정희 자매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의 광정희 자매가 지난 9월 11일, 인천 시장으로부터 봉사에 대한 공로 표창장을 받았다. 광 자매는 자원

봉사 센터 등 여러 시설에서 수년간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한 것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광 자매는 젊은이 못 지 않은 봉사 활동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주환 기사)

임태현 형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금상 수상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노동부와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주최의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안양 스테이크 금천 2와드 소속의 임태현 형제가 컴퓨터 활용 능력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교회 한국 서비스센터 정보처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 형제는 ‘교회의 서기로 봉사하며 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도우며 저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향상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56기 4명/제257기 3명/해외 2명



김계형
광주 스테이크
참단 와드
서울 선교부



오경미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부산 선교부



이정희
서울 북
스테이크
알산 와드
대전 선교부



이길세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주은경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김성화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유타 템플 스케이
선교부



진소정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이재원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남 선교부



박지은
대구 스테이크
포항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변경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감독 : 유병철 (전임자 : 강원철)
안동 지부장 : 이기형 (전임자 : 김용기)

마산 스테이크

밀양 지부장 : 김주훈 (전임자 : 한기현)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감독 : 박현용 (전임자 : 황금수)

서울 동 스테이크

동두천 지부가 의정부 와드에 편입
의정부 와드 감독 : 김규태 (전 의정부 와드 감독)
전임자 : 정윤현 (동두천), 김규태 (의정부)

서울 북 스테이크

금촌 지부장 : 김중갑 (전임자 : 이영석)

서울 영동 스테이크

하남 지부장 : 이용범 (전임자 : 최정식)
오륜 와드 감독 : 윤형식 (전임자 : 정욱)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감독 : 황인상 (전임자 : 김현수)

홍성 지방부

대전 지부장 : 서광문 (전임자 : 최재완)